



2025.8.5(화) 제25-58호

KOTRA 워싱턴 D.C. 무역관

KOTRA 워싱턴 D.C. 경제통상 브리핑은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매주 2회(화/목) 배포합니다.



▣ 주요 내용

⌚ 워싱턴 D.C. 포커스

- (관세) The Budget Lab,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 분석…소비·생산·분배에 악영향 1
- 상호관세 부과 8월 7일부터 본격 시행, 소비·생산·분배 모두 미국 역사상 최고 수준의 부담 전망

₩ 경제통상 동향

- (통상) 트럼프 대통령, 반도체·의약품 수입품에 대한 관세 발표 예고 3
- (의약품) 트럼프 대통령, 주요 제약사에 최혜국대우(MFN) 수준 약가 인하 촉구 4
- (경제) 美 6월 무역적자 602억 달러 기록, 수입 급감으로 전월 대비 16% 축소 5

⚖️ 의회법안 동향

- 인공지능, 중국 경제, 조선업 관련 3건 6

🗣️ 이시각 헤드라인

-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7
-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8

📅 워싱턴 D.C. 주요일정

8.7(목)	• 상호관세 발표, 8월 첫째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(Initial jobless claims)
8.12(화)	• 7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(Core CPI), 7월 연방 예산(Monthly U.S. federal budget)
8.13(수)	• 애틀란타 연준 총재 보스틱 연설(Atlanta Fed President Bostic speaks)

◎ 워싱턴 D.C. 포커스

(관세) The Budget Lab,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 분석 … 소비·생산·분배에 악영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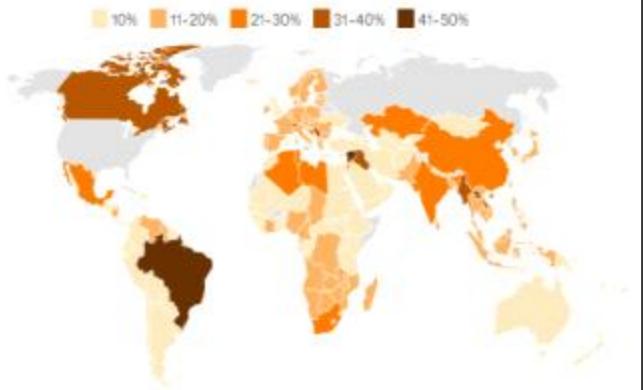
1. 개요

□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, 8월 7일부 본격 시행

- 주요 교역국의 수입품을 대상으로 최대 41%(시리아)에 이르는 관세율 적용
 - 미국 시장으로 수출하는 70여개국이 국가별로 지정된 관세(10~41%) 적용 대상, 기준에 들지 않은 기타 국가는 일괄 10% 기본 관세를 적용
 - 캐나다는 8월 1일부터, 멕시코는 기존 25% 관세가 90일간 연장, 브라질은 총 50% 관세 적용 등 주요 교역국별 차등 관세 정책 확정
 - * 국별 예외 품목 및 예외 기간 상이
 - 영국은 10%, EU, 일본, 한국 등은 각각 15% 수준으로 합의했으며, 필리핀·인도네시아 19% 등 신흥국도 각각 상이한 개별 관세율이 부여됨.

〈미국의 상호 관세율(8.1일 기준)〉

국가/영토	4.2일 상호관세율	조정 상호관세율
영국	10%	10%
유럽연합(EU)	20%	15%
일본	24%	15%
한국	25%	15%
인도네시아	32%	19%
필리핀	17%	19%
말레이시아	24%	19%
베트남	46%	20%
인도	26%	25%
멕시코	30%	25%
캐나다	25%	35%



[자료: 백악관 행정명령 및 현지 언론 Axios 인용]

2. 상세

□ 미국 예일대 The Budget Lab (TBL) 관세 영향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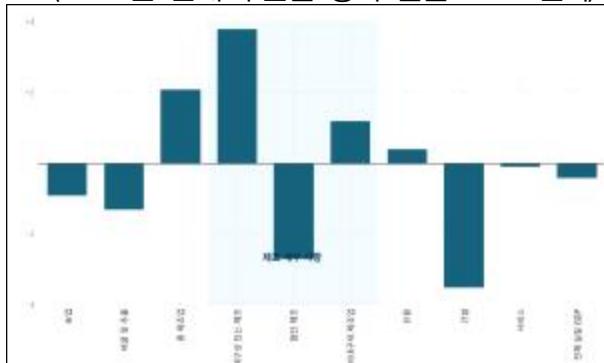
- 2025년 관세 정책, 역사상 최고 수준의 부담…소비·생산·분배 모두 악영향
 - 8월 1일 기준 미국 소비자의 평균 유효관세율은 18.3%로 1934년 이후 최고치, 수입선 다변화 이후에도 1935년 이래 최고 수준인 17.3% 분석

- 2025년 8월 이후 미국의 전체 관세로 인해 미국 내 전체 물가가 단기적 1.8%, 장기 1.5% 상승하며, 가구별 평균 실질소득이 연간 2,400달러(장기 2,000 달러)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발표
- * 관세의 단기 부담은 저소득층에 더 큰 영향, 상위10% 1,300달러 < 하위10% 4,900달러

• 세부 품목별 분배, 성장 및 고용의 단기적·장기적 영향 심층 분석

- (원자재 가격) 의류와 신발 관련 물가가 단기 38~40% 상승(장기 17~19% 인상 유지), 식품 가격이 3.3% 오르고 신차 가격이 평균 5,800달러(단기) 인상, 장기적 영향 지속
- (실질 GDP 효과) 2025~2026년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은 -0.5%포인트씩 하락, 장기적으로도 GDP 규모가 -0.4% 축소(연간 1,200억 달러 감소)될 전망
- (노동 시장 효과) 실업률은 2025년 말 0.3%p, 2026년 말 0.7%p 상승하며, 고용은 연말 기준 50만 명 가까이 감소
- (부문별 GDP 및 고용 효과) 산업별로는 제조업 생산과 일자리가 2.1% 확대되는 반면, 건설(-3.5%), 농업(-0.9%), 광업(-1.3%) 등 다른 부문 축소 효과로 상충 예상
- (재정적 영향) 연방정부는 2026~35년 동안 2.7조 달러에 이르는 관세 수입 예상, 경제위축 등 동적 효과 반영 시 실제 순수입은 2.2조 달러로 축소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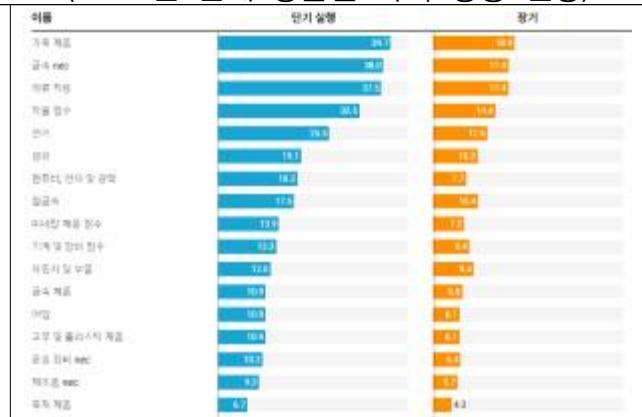
〈2025년 관세 부문별 장기 실질 GDP 변화〉



* 제조업 생산 일자리는 확대되는 반면, 건설·농업·광업 등 다른 부문 축소 효과로 상충 예상

[자료: The Budget Lab]

〈2025년 관세 상품별 가격 영향 전망〉



* 품목별 단기적 1.8%, 장기적 1.5% 가격 상승 전망

[자료: The Budget Lab]

- 단기적으로 저소득층 부담, 소비재·내구재 가격 급등, 수입선 전환 등 시장 왜곡 심화 분석, 장기적으로는 노동 및 자본 소득 전체에 부담이 전가될 것으로 예상

※ 현지 주요 언론은 관세정책 영향으로 “경기 둔화 및 인플레이션”, “구매력 감소 및 소비심리 위축”, “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연” 등 전망

▪ 작성자 워싱턴 D.C. 무역관 김준희

▪ 자료원 백악관([7.31](#)), The Budget Lab ([8.1](#)), Axios ([8.1](#)), 블룸버그([7.24](#))



(통상) 트럼프 대통령, 반도체·의약품 수입품에 대한 관세 발표 예고

- (개요)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및 의약품 수입품에 대한 232조 기반* 신규 관세 부과 방침을 “향후 일주일 내”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(8.5. CNBC 인터뷰)
 - 미 상무부는 4.1일 반도체·의약품 수입품에 대한 232조 조사를 착수했으며, 통상 최대 270일의 조사 기간이 소요되나, 트럼프 행정부는 공청회 없이 신속 추진 중
 - 반도체는 연간 약 7,00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전략 산업으로, 미국은 해당 품목을 자국 내 생산 확대 및 공급망 재편을 위한 핵심 타깃으로 설정
 -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은 초기에는 소규모 관세를 적용하고, 1~1.5년 내 150%까지 인상, 이후 최대 250%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언급
- (상세) AI·제약 산업 전반에서 조달 비용 증가 및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우려
 - 애플, 엔비디아, 퀄컴, AMD 등 미 반도체 기업은 대만 TSMC 등 해외 파운드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, 관세 부과 시 첨단 반도체 조달 비용 상승 및 AI 관련 투자 차질 가능성이 제기
 - Merck, Eli Lilly 등 다국적 제약사는 다수의 해외 제조시설을 운영 중으로, 미국 내 제조 이전 시 공급망 재편에 따른 비용 증가 및 제조 원가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
 - 미국 내 제약업계의 약 90%가 승인 제품의 절반 이상을 수입 부품에 의존하는 구조로, 고율 관세는 장기적으로 업계 전반에 걸친 비용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다대

■ 작성자 워싱턴 D.C. 무역관 Olivia Kim

■ 자료원 블룸버그([8.5](#)), CNBC([8.5](#))

(의약품) 트럼프 대통령, 주요 제약사에 최혜국대우(MFN) 수준 약가 인하 촉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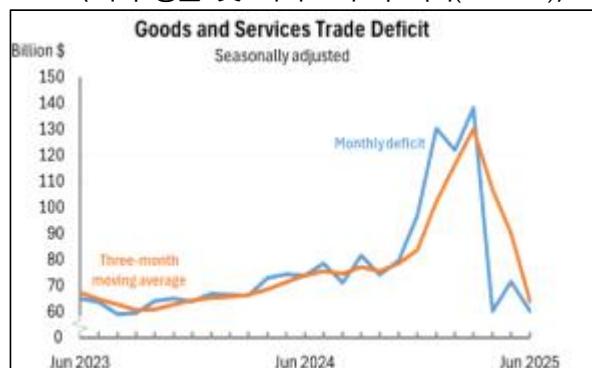
- (개요) 트럼프 대통령, 주요 제약사에 미국 내 약가 인하 촉구 서한 발송(7.31)
 -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을 통해 주요 글로벌 제약사에 미국 내 처방약 가격을 OECD 최저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며, 9.29일까지 구속력 있는 이행 계획 제출 요청
 - 제약사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, ▲ 해외 저가 의약품 수입 확대 ▲ 중개자 배제 직접판매 방식 도입, ▲ 연방구매가격 상한 강화 등 제도적 수단을 통한 대응 예고
- (상세) 최혜국가격(MFN) 기준 약가 인하 적용 및 제도적 환수 조치 검토
 - 총 17개 주요 글로벌 제약사*에 대해 ▲ 메디케이드(Medicaid) 대상 MFN 기준 적용
 ▲ 타 선진국 수준의 신약 가격 책정 ▲ 직접판매 확대 등 다각적 가격 인하 방안 요구
 - * 화이자(Pfizer), 머크(Merck), 존슨앤드존슨(J&J), 사노피(Sanofi), 일라이릴리(Eli Lilly) 등
 - 외국 약가 인상으로 발생한 초과수익은 미국 정부 및 환자에게 환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, 규제 완화 중심의 기존 업계 제안을 일축하고 실질적 이행 촉구
- (반응) 약가 규제 강화에 따른 업계 반발 및 정책 실현 가능성에 회의론 제기
 - 주요 제약사는 정부 요구에 협력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▲ R&D 위축 ▲ 지재권(IP) 침해
 ▲ 선진국 간 가격 역차별 등을 우려하며, 구조적 약가 규제 강화에 신중한 입장 유지
 - 일라이릴리, 노보노디스크 등 일부 기업은 직접판매 확대 등 제한적 수용 조치를 통해 대응에 나섰으나, 전반적인 약가 통제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 견지
 - 전문가들은 동 조치가 과거 행정부가 반복적으로 추진해 온 약가 인하 정책의 연장선에 불과하며, 이행 방안 및 입법 기반 미흡으로 정책 실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

▪ 작성자	워싱턴 D.C. 무역관 정연호
▪ 자료원	백악관(7.31), 로이터(7.31), 더 힐(7.31)

(경제) 美 6월 무역적자 602억 달러 기록, 수입 급감으로 전월 대비 16% 축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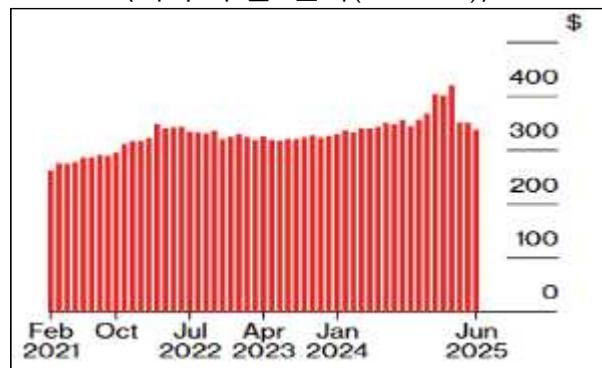
- (개요) 미국 '25년 6월 상품 및 서비스 무역적자, '23년 9월 이후 최저 기록
 - 미 경제분석국(BEA)이 발표(8.5)한 데이터에 따르면, 6월 상품·서비스 무역적자는 전월 717억 달러(수정치) 대비 16% 축소된 602억 달러를 기록
- (상세)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인한 소비재 수입 급감에 기인, 6월 무역 적자 축소
 - 6월 △수출은 2,773억 달러로 전월 2,780억 달러 대비 13.5억 달러(0.5%) 감소, △수입은 약 3,375달러로 전월 3,505억 달러 대비 128억 달러(3.7%) 감소
 - 관세 영향으로 인한 수입 감소 및 상품 적자 감소(114억 달러 감소)가 전체 적자 감소에 크게 기여했으며, 서비스 흑자는 0.1억 달러 증가하여 257억 달러를 기록

〈미국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적자('23~'25)〉



[자료: BEA]

〈미국 수입 변화('21~'25)〉



[자료: 블룸버그]

- (수출) 상품 수출은 1,791억 달러로 전월 대비 12억 달러 감소(자본재·민간 항공기 수출 증가로 부분적 상쇄), 서비스 수출은 여행 감소에 따라 2억 달러 감소한 982억 달러 기록
 - (수입) 상품 수입은 126억 달러 감소한 2,650억 달러(▲소비재 수입(84억 달러), ▲산업재 수입(27억 달러) 대폭 감소), 서비스 수입은 2억 달러 감소한 725억 달러 기록
 - 대중국 무역 적자는 94억 달러로, 2004년 2월 이후 최저치 기록(대중국 적자는 관세의 영향으로 5개월 연속 222억 달러(70%) 감소)
- * 무역적자국 멕시코(\$163억), 베트남(\$162억), 대만(\$129억), EU(\$95억), 중국(\$94억), 한국(\$55억)

▪ 작성자 워싱턴 D.C. 무역관 문현주

▪ 자료원 미 경제분석국(8.5), 블룸버그(8.5), 로이터통신(8.5)

▶ 의회법안 동향

구분 (현행일)	법안 (발의일)	대표 발의자	법안 및 주요 내용
인공지능 (7.31)	S.2604 (상) (7.31)	Mike Rounds (공)	<p>〈인공지능 총괄위원회 설립 법안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미 국방부에 인공지능 총괄위원회 (AGI Steering Committee) 설립 요구 ▪ AI 수출통제 강화로 미국 핵심 AI 기술을 해외 유출과 오남용 방지
중국 견제 (8.01)	S.2657 (상) (8.01)	Jeanne Shaheen (민)	<p>〈중국의 러시아 침공 지원 제재 법안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중국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지원 관련 단체·개인 규제 ▪ 중국이 러시아의 방위산업 지원이나,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행위에 경제적·외교적 제재 시행
조선업 (8.01)	H.R.4839 (하) (8.01)	Ed Case (민)	<p>〈해운 동맹 파트너십 법안 (Merchant Marine Allies Partnership Act)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동맹국 선박, 동맹국 국민 소유, 동맹국 승무원 선박이 미국 연안 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 제공 ▪ 미국 존스법 (Jones Act) 선박의 건조·수리를 일본, 한국 등 동맹국으로 이전, 동맹국에서 선박 개조 시 50% 세금 면제

* 미국 동부 시간 8월 5일 15시 모니터링 기준

현지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

언론사	주요 보도내역
The Wall Street Journal	<p>Trump Says Chip, Pharma Tariffs Are Coming Within Next Week (트럼프, 차주 중 반도체·의약품 관세 발표 예정)</p> <p>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점차 높여 250%까지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, 금일 CNBC 인터뷰를 통해 차주 중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해</p>
The Washington Post	<p>Trump EPA plans to claw back \$7 billion in rooftop solar grants (옥상 태양광 설치 보조금 회수에 나서는 환경보호청)</p> <p>환경보호청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맞춰 옥상 태양광 프로젝트에 배정되었던 7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폐지할 계획. 환경보호청은 동 조치가 OBBBA 이행을 위한 것이라고 밝혀</p>
The New York Times	<p>President Rules Out Bessent as Powell's Replacement at Fed (트럼프 “베선트는 연준 의장 후보 아니야”)</p> <p>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4명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으나, 베선트 재무장관은 본인이 원하지 않아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언급. 후보자로는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과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</p>
CNN	<p>A California plan is likely the Democrats' best option in the redistricting wars (게리맨더링 전쟁...캘리포니아에 집중하는 민주당)</p> <p>공화당이 텍사스 선거구 재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,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 선거구 재조정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져. 조정이 승인될 시 주 내 공화당 9석 중 5석을 탈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</p>
USA Today	<p>President Trump accuses prominent banks of political discrimination (트럼프, 주요 은행의 정치적 차별 행태 비난)</p> <p>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은행이 자신을 심하게 차별했다며 주요 은행 비난에 나섰으며, 보수주의자 및 암호화폐 기업을 정치적으로 차별하는 은행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</p>

* 미국 동부 시간 8월 5일 16시 기준

워싱턴 D.C. 무역관 공지사항

◆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, 경제통상리포트 (과거 리포트 : [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](#))

발간번호	제목 (※클릭하면 이동합니다)	발간시기
US25-28	<u>美 정부 『AI 행동계획』 행정명령 발효 - 주요내용 및 현지 반응</u>	2025.08월
US25-27	<u>백악관 에너지산업 정책보고서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</u>	2025.07월
US25-26	<u>CSIS 중국의 갈륨 수출 통제 및 글로벌 공급망 영향 분석</u>	2025.07월
US25-25	<u>美 최초 암호화폐 법안(Genius Act) 주요 내용 및 시사점</u>	2025.07월
US25-24	<u>트럼프 행정부, 감세법 발효로 IRA 기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개편 추진</u>	2025.07월
US25-23	<u>PIIE, 트럼프 행정부 관세 조치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</u>	2025.07월
US25-22	<u>미·중 무역 프레임워크 진행 경과 및 향후 전망</u>	2025.07월
US25-21	<u>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과 현지 반응 및 전망</u>	2025.06월
US25-20	<u>미국 232조 관세 대상 철강 파생 제품 추가 지정에 따른 영향 분석</u>	2025.06월
US25-19	<u>미국 제조업 산업별 관세 정책 영향 및 현지 동향</u>	2025.06월
US25-18	<u>美 에너지 자립 및 원자력 산업 부양을 위한 행정 조치 주요 내용</u>	2025.06월
US25-17	<u>美 하원 세제 법안에 포함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제도 수정 조항</u>	2025.06월
US25-16	<u>트럼프 행정부 IEEPA 기반 관세 조치에 대한 법원 판결 동향</u>	2025.05월
US25-15	<u>G7 재무장관 회의 주요 논의내용 및 현지 동향</u>	2025.05월
US25-14	<u>약가 인하 행정명령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</u>	2025.05월
US25-13	<u>미국 정기선 해운산업의 경제적 영향 및 항만료 추정 비용 분석 주요 내용</u>	2025.05월

◆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,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(과거 인터뷰 : [유튜브 KOTRA TV](#))

인터뷰번호	제목	바로가기
코인사-22 (2025.5.13.)	 미국 통상 전문가가 예측한 트럼프 2기 글로벌 경제	
코인사-21 (2025.2.8.)	 워싱턴 특파원이 알려주는 미국 경제 통상 핵심 키워드	

문의	이메일	전화
	seogil.chang@kotra.or.kr	+1) 202-857-7919
	jwshim@kotra.or.kr	